(759)

주체108
(2019) 10

차　례

표지: 대동강반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　　사진 홍광남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나라의 전반적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태풍13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확대회의를 9월 6일 오전 긴급소집하고 국가적인 비상재해방지대책을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비상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들, 도당위원장들,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관들,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비상확대회의에서는 조선반도로 빠르게 북상하고있는 태풍13호의 세기와 예상자리길, 특성 및 예상피해지역과 규모에 대한 분석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처하여 국가적인 긴급비상대책들을 세우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태풍13호에 의해 초래될 피해의 심각성과 지난 시기의 태풍피해실례를 상세히 통보하시고 자연재해에 대처한 전국적인 위기관리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초래되는 파국적인 후과를 최소화하여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나라의 자연부원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전국가적으로, 전당적으로, 전군적으로 태풍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부문별, 단위별, 지역별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태풍13호에 의한 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총궐기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정신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에게 빠짐없이 긴급침투시키고 사상동원사업을 화선식으로, 전투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시기 피해실례를 놓고 해당 부문, 해당 단위들에서 분석대책하며 태풍피해를 입을수 있는 대상과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취약지대를 점검하는 등 피해예방에 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태풍피해방지투쟁에서 인민군대가 주력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력성적인 피해방지대책지휘부와 군종, 군단급단위 피해방지전투지휘조들을 층층으로 조직하고 피해예방과 복구사업을 신속히 지휘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태풍피해를 미리막는데서 시급하게 나서는 중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내각, 성, 중앙기관, 도, 시, 군들에서 태풍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후과가 큰 대상들부터 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불비한 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도, 시, 군당들에서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태풍에 의한 피해발생지역들에 긴급구조대를 파견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며 자기 지역의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인민무력성 책임일군들이 태풍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협동작전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체계를 유지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정권기관 일군들, 도당위원장들, 무력기관 지휘관들을 비롯한 모든 책임일군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태풍위험이 완전히 가셔질 때까지 해당 지역들에 내려가 주야간 자기 위치를 정확히 차지하고 최대로 긴장하여 태풍피해를 막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확대되지 않게 즉시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결속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자연재해로부터 인민의 안녕과 생명재산을 지켜내는것을 응당한 본분, 마땅한 사명으로 여기고 맡겨진 성스러운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시며 누구도 대신 못할 나라의 억센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글 김 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9월 6일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교육발전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인재교육전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초선으로 그 위치를 비상히 높여주시였으며 교원들을 교육혁명의 전초병들로, 조국의 미래를 푹 맡길수 있는 미더운 혁명가들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무한한 격정속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시며 후대교육사업에 순결한 량심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교육자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교원들은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를 키우는 공산주의자이며 참다운 애국자, 직업적혁명가이라고 하시면서 전례없는 규모로 진행된 이번 대회가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대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잘 알고 교육부문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교원들과 교육일군들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교육발전혁명방침관철의 직접적담당자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후대교육사업에 깨끗한 량심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교원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족교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헌신분투하며 애국충정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고있는 총련교육자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총련교육일군대표단 성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특별히 따로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글 김미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당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하였다.

평안남도 양덕군을 독특한 다기능체육문화휴양지, 료양치료기지로 변모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도내인민들, 돌격대원들의 견인불발의 노력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대상건물골조공사와 지붕씌우기공사, 내외부미장공사가 결속되고 스키장주로닦기와 도로개설, 수로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성됨으로써 현대적인 온천관광지구의 웅장한 자태가 드러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당에서 구상한대로 자연지대적특성을 잘 살리고 주변의 환경과 정교하게 어울리는 특색있는 관광지구가 형성되였다고 만족해하시면서 구획구분과 배치가 실용적이며 매 건물들이 건축미학적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크지 않은 이런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도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새겨넣어야 한다고, 우리 인민들이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남은 마감공사를 질적으로 재치있게 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인민들에게 선물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천휴양과 료양시설들에 대한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스키장의 체육기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올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찾는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대상공사를 질적으로 마무리하고 해당 부문에서 봉사준비도 잘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눈부신 기적과 거창한 변혁으로 비약을 선도하며 우리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군대가 있어 당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번영의 휘황한 설계도를 끝없이 펼쳐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고결한 충성심과 비상한 애국적열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최강의 전투력에 의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적정책이 이 땅우에 현실로 꽃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자랑이며 국가의 기둥인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드높이 위대한 인민의 아들딸답게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보답해나가기를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 식으로 창조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애로를 자력갱생정신으로 뚫고나가며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도내인민들과 돌격대원들, 철도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과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맡은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정말 수고가 많다고, 오늘 건설장을 돌아보고 대단히 만족해하였다는것과 모두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며 그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글 문광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0일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초대형방사포의 전투전개시간을 측정해보시며 이번 시험사격에서 확증할 지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두차례에 걸쳐 시험사격이 진행되였다.

또다시 진행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은 시험사격목적에 완전부합되였으며 무기체계완성의 다음단계방향을 뚜렷이 결정짓는 계기가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는 전투운영상측면과 비행궤도특성, 정확도와 정밀유도기능이 최종검증되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되는 련발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것이라는 평가를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식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개발사업에서 련속적이며 기록적인 성공을 안아오고있는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주시였다.

국방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지도간부들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다져주시려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자기들에게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높은 실력과 실천으로 충실하게 받들어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글 최광호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진행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교원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제14차 전국교원대회가 9월 3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전국의 모범적인 교원들과 교육일군들, 중앙과 도, 시, 군의 교육부문 지도일군들, 후원단체를 비롯한 련관단위 일군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최근년간 조선로동당의 교육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총화하고 교육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가 정중히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 나라의 교육수준을 빠른 기간에 가장 발전된 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워 모든 학생들을 부강조국을 떠메고나갈 혁명인재로 키우려는 조선로동당의 의도와 결심, 교육혁명의 전초병들인 교원들의 사명과 임무, 나라의 전반적교육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실천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대회보고를 내각총리 김재룡이 하였다.

보고자는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이후 지난 5년간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교육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원만히 실시되여 중등일반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일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된것은 주체교육발전사에 특기할 성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주체교육발전에서 이룩된 고귀한 성과들에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직접적담당자라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량심의 교단, 헌신의 교단, 애국의 교단을 충직하게 지켜온 교원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자력갱생대진군은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교육자들과 일군들이 당의 교육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소년단축하단이 대회장에 입장하여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 드리는 축하시 《축하를 드려요 온 나라 선생님들에게》를 랑송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고 조선혁명박물관과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곳을 참관하였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도 관람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정기상

대회참가자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청년절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있었다.

청년절을 뜻깊게 경축

지난 8월 28일 조선청년들이 조선로동당과 정부 그리고 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속에 자기들의 명절을 경축하였다.

이날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이 각지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들에 나가 청년들을 축하해주고 그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였다.

수도의 대학,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김일성**광장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장소들에서 취주악을 울리며 명절분위기를 돋구었다.

청년절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무대가 **김일성**광장에 펼쳐지고 평양의 봉화예술극장, 평양대극장, 국립연극극장 등에서도 청년절에 즈음한 공연들이 진행되였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경축의 무대가 펼쳐지고 어디가나 청년판으로 흥성이는 속에 서산축구경기장에서는 홰불컵 남자축구경기에 참가한 홰불팀과 압록강팀사이의 경기가 진행되였다.

평안남도, 함경남도, 개성시 등 각지에서도 무도회, 취주악대활동,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문화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이날 저녁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청년절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는 명절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진군길에서 척후대의 영예를 빛내여가는 청년들의 기상이 차넘치는 무도회장에 련이어 울려퍼지는 노래선률에 맞추어 참가자들 누구나 손벽을 치고 어깨를 들썩이며 흥겨운 춤판을 펼쳤다.

환희와 격정에 넘쳐 명절을 보내는 청년들의 얼굴마다에는 조국이 부르는 곳마다에서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인생의 가장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름답게 수놓아갈 열의가 넘쳐있었다.

사진 김혁철, 리철진
글 강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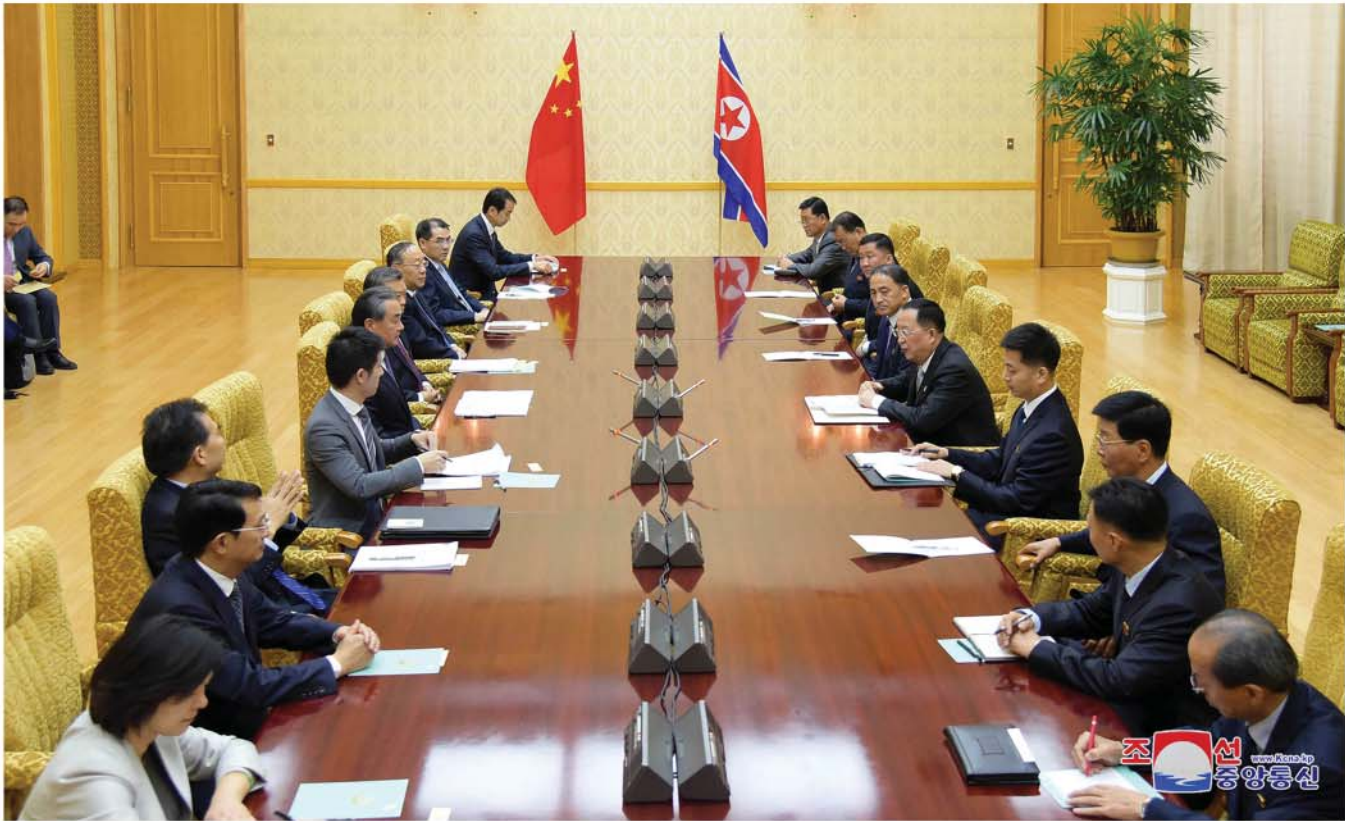
청년절을 맞으며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와 예술공연,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이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났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사이의 회담이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이 천안문광장에 있는 인민영웅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고 중국공산당 제1차대회장기념관을 비롯한 베이징과 상해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사이의 회담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안주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았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참관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타일제품의 다색화, 다양화를 실현하여

남포시 천리마구역에 자리잡고있는 천리마타일공장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 색갈, 문양 그리고 방수와 차열기능 등을 갖춘 고급건재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여나오고있다.

공장에는 외벽타일직장과 내벽타일직장, 바닥타일직장, 장식타일직장을 비롯한 생산직장들과 원료직장, 공업시험소 등이 있다.

주체98(2009)년 조업한 때로부터 자체의 기술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원료, 연료의 국산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공장에서는 최근년간 새 제품개발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2년전 공장에서 유면연마타일을 개발할 때였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새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약과 화장토를 국내의 원료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그리고 타일의 만곡도와 투명도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문제들도 공장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하나하나 해결해나갔다.

하여 색의 선명도에 있어서나 질감에 있어서 일반대리석타일과는 비교할수 없이 우월한 또 하나의 마감건재품을 개발해냈다.

지난해에만도 이들은 백수십건의 기술혁신안, 창의고안들을 생산에 도입하였다.

그 나날에 제33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을 비롯한 5차의 국가적인 전시회들에서 과학기술상장과 국가발명증서를 비롯한 수십여개의 증서들과 최우수컵,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올해에 진행된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2019에서도 다색화, 다양화가 실현된 공장의 타일제품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배인 백학성은 생산능력에 있어서나 물질기술적잠재력에 있어서 공장의 전망은 락관적이라고 하면서 질좋은 타일제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서는 건축물들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진 최원철
글 최의림

그물우리에 의한 양어에 큰 힘을 넣어

평양의 중심부를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과 보통강의 풍치가 계속 늘어나는 그물우리양어장들과 더불어 더욱 이채로워지고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물우리양어시설은 수질환경이 좋고 자연먹이가 풍부할뿐아니라 물흐름속도가 적당한 수역에 배치하는것이 리상적인데 주체75(1986)년 서해갑문이 완공됨으로써 대인공호수로 전변된 대동강이나 그 지류인 보통강, 남강 등은 그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있다.

대동강에 그물우리양어장이 생겨나 시민들의 눈길을 모으기 시작한것은 주체104(2015)년부터이다.

시안의 양어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적이고 자동화된 1 600여㎡ 크기의 이동식 그물우리양어장을 만들어 옥류교와 릉라도사이의 수역에 설치하였던것이다.

그들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사들과 마음을 합쳐 양어장의 물온도와 페하, 산소량 등을 실시간 측정하고 그물우리별 먹이공급량과 공급회수, 공급시간은 물론 나비등, 불장식등을 자동조종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와 수질오염을 철저히 방지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았다.

태양빛전지판들을 설치하여 양어장관리운영에 필요한 동력문제도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그물우리양어는 못에서 물고기를 기르는것보다 우월한 점이 많았다.

물보장에 필요한 양수동력설비들이 전혀 필요없었으며 많은 로력과 먹이를 절약하면서 계절적영향도 크게 받지 않고 물고기를 생산할수 있었다.

이 경험에 토대하여 시에서는 다음해에 54개의 그물우리양어시설을 제작하여 대동강과 보통강을 끼고있는 여러 구역들에 전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당 수역의 특성에 맞는 양어방법과 기준을 확립하며 우량품종의 물고기종자와 사료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하여 그물우리양어장은 해마다 늘어나 올해에는 그 총면적이 1만 1 700여㎡에 달한다.

그물우리양어장이 늘어나니 생산되는 물고기량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기쁨도 더욱 커가고있다.

사진 최원철, 리명국
글 김미예

어린이들을 위한 공장

평양에서는 종종 시안의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와 초급, 고급중학교들을 찾아 거리들의 복판으로 줄지어 달리는 콩우유차들을 볼수 있다.

시민들속에서 일명 《왕차》라고 불리우는 이 차들의 운행길은 매일과 같이 평천구역에 위치하고있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시안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매일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콩신젖, 콩우유와 함께 수많은 어린이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는 공장은 《꽃망울》상표와 더불어 사람들 특히 갓난 애기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주체104(2015)년에 공장은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롭게 개건되였다.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고 원료의 투입으로부터 제품생산과 포장, 보관과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의 자동화, 무인화가 실현된 공장은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고있다.

그러나 생산활동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하나같은 관점이고 립장이다.

종업원들속에서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여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열풍이 이는 속에 학위학직소유자들과 발명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경영활동과 설비관리, 생산활동에서 끊임없는 비약이 이룩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페열을 리용하는 콩건조공정이 꾸려져 로력을 절약하고 원료의 질 나아가서 제품의 질을 과학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으며 애기젖가루직장의 제품출하공정이 새로 꾸려졌다.

콩펩티드우유가루, 홍당무우가루를 비롯하여 어린이성장에 효과적인 여러 제품들을 개발해낸 공장의 연구집단은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내놓고있다.

과일암가루, 물고기뼈가루, 당콩가루, 다시마가루 …

하기에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제품들에 대한 어머니들의 애착은 나날이 커가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문광봉

유치원어린이들에게 콩우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있다.

동해의 명승 마전유원지를 찾아서

함경남도 함흥시에 위치하고있는 마전은 조선동해안의 손꼽히는 명승지의 하나이다.

지난날 삼밖에 자라는것이 없어 마전이라 불리워진 이곳이다.

인적드문 한적한 바다가였던 이곳이 로동당 시대에 와서 인민의 웃음 넘치는 문화정서생활 기지로 전변되였다.

마전은 지리적으로 볼 때 함흥만안에 이루어진 작은 만으로서 야산들이 병풍처럼 주변을 둘러싸고있어 바람도 비교적 잔잔하다.

년평균 기온은 10.3℃, 년평균강수량은 831.4㎜이다.

류달리 맑은 바다물의 깊이는 모래불로부터 바다쪽 50m까지 1.5m정도이고 염도는 3.69%로서 사람들의 건강에 아주 좋다.

소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이 자라는 무성한 숲이 백사장과 조화를 이루고있다.

십여리구간에 50~100m폭으로 펼쳐진 모래불의 기본광물조성은 석영, 장석, 운모, 각섬석 등으로서 아주 깨끗하다.

이렇듯 해빛, 백사장, 바다물, 수림, 호수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름난 마전유원지가 최근년간 또다시 훌륭하게 변모되여 찾아오는 사람들을 더욱 기쁘게 하고있다.

이미 있던 정각과 휴양각들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현대적미감에 맞게 개건되였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맞게 갈매기를 형상하는 7동의 새 휴양각들이 일떠섰다. 지난 7월부터 손님들을 맞이한 휴양각들에는 아담하고 정갈하게 꾸려진 침실들과 탁구장, 유희오락장 등과 함께 실내 바다물수영장도 있다.

하기에 올해에도 유원지는 함흥시와 도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뿐아니라 평양과 다른 도들에서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로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고있다.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마전유원지는 밤이 깊어가도 잠들줄 모른다.

사진 리명국
글 박병훈

깊은 인상을 남긴 피아노연주가들

지난 5월 뽈스까에서는 제27차 쇼뺑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이 진행되였다.

나이에 따라 3개 부류로 나뉘여 진행된 경연에는 세계 18개 나라의 우수한 피아노연주가 50여명이 참가하였다.

조선에서는 경상유치원의 리권윤(6살), 유진아(6살)어린이들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의 김예송(15살)학생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중 나이가 제일 어린 조선의 두 꼬마연주가들은 경연심사위원회 성원들과 전문가들의 호기심을 모았다. 그래서 1부류 경연무대에는 리권윤어린이가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였다.

쇼뺑의 난도높은 기교곡들을 능란하게 연주한 권윤은 나이를 초월한 훌륭한 형상을 보여준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특등상을 받았다.

남달리 감수성이 좋아 유치원에서 빈번히 교양원들을 놀래웠으며 무대발표능력도 뛰여난 유진아 역시 세계명곡들을 자신만만하게 연주하여 특등상을 수여받았다.

그는 수상자들의 모범연주회에도 출현하였다.

3부류경연에 참가한 김예송학생도 자기의 예술적기량을 잘 보여주었다. 여러가지 타법으로 피아노곡들을 능란하게 연주하는 그의 모습은 심사원들과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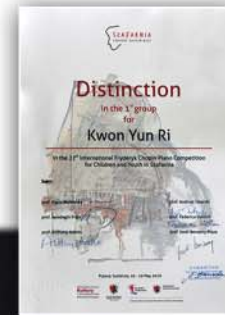
김예송학생도 어릴적에는 경상유치원에서 피아노를 배웠다.

경연에서 돌아온 그들은 자기들을 훌륭히 키워 내세워준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지금은 리권윤, 유진아도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 학생이다.

사진 홍태웅
글 문진유

유진아

리권윤

김예송

재능있는 소년

주체108(2019)년을 맞으며 진행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 《축복의 설눈아 내려라》에서 이채로운 무대를 펼쳤던 한 꼬마연주가가 있다.

목금과 드람세트, 피아노를 능란하게 다루어 관중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킨 금성제1중학교 소학반 학생인 정성관이다.

올해 10살나는 그는 조선의 유명한 예술인재후비양성기지인 경상유치원에서 피아노를 잘 타서 이 학교로 선발되였다.

훌륭한 피아노연주가가 되리라고 기대했던 성관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목금을 배우고싶다고 하였을 때 그의 부모들은 놀랐다.

피아노기초가 든든한데 왜 하필이면 새 악기를 힘들게 시작하겠느냐고 부모들이 타일렀으나 성관의 결심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연인즉 상급생들의 기량발표회를 보면서 독특한 음색을 내는 목금에 호기심이 동한것이였다.

목금을 배우겠다고 소조실에 찾아왔던 성관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지도교원 정설미는 말한다.

성관이는 확실히 천성적인 재간이 있었다.

모든 주법이 정확했고 하나를 가르치면 둘, 셋을 넘겨짚었다.

하지만 워낙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잘 타서 무대에 나서면 자세가 유연하지 못하고 인상이 굳어져 애를 먹었다.

지도교원은 률동훈련을 시키고 선배들의 목금연주록화물도 보여주며 그의 자신심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목금을 배우기 시작한지 1년도 안되여 성관이는 한손에 두개씩 네개의 채를 잡고 화음도 연주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후엔 드람연주법까지 터득했다.

소조지도교원과 담임선생님은 물론 유치원시절의 교양원선생님도 성관이의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을 돌렸다.

하기에 성관에게서는 나날이 늘어나는 재간과 함께 자기를 키워주는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도 커갔다.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어느 한 경연에서 성관이는 심사성원들 모두의 높은 평가를 받고 설맞이공연에 출연하게 되였다.

학급동무들속에서 상식박사로 불리우는 성관이는 책읽기를 무척 즐기고 글짓기도 잘한다. 설맞이공연을 마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날 저녁 성관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를 집안의 자랑이라고 매우 기뻐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를 안고 더 노력하여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사진 손희연
글 강수정

청춘거리 체육인숙소

체육종목별 경기장과 경기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는 평양의 청춘거리에 또 하나의 건축물이 일떠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8월에 준공한 청춘거리 체육인숙소이다.

경경기관과 탁구경기관사이에 위치하고있는 이 15층건물의 연건축면적은 1만 1 800여㎡이다.

근 400명을 수용할수 있는 숙소에는 깨끗하고 아늑하게 꾸려진 침실들과 함께 리발실, 미용실, 청량음료점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 그리고 장기와 바둑, 윷놀이 등을 할수 있는 오락실, 탁구장 등 체육인들의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져있다.

이곳에는 또한 체육인들이 독서도 하고 현대체육발전추세와 전문분야의 체육기술도 터득할수 있게 하는 전자도서실도 꾸려져있다.

국가대표팀에 망라된 선수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이 일떠섬으로써 그들의 생활과 편의를 더 잘 도모해주게 된것은 물론 더 높은 성과를 이루도록 추동하게 되였다고 이곳의 경영일군들은 말하고있다.

사진 최명진
글 최의림

체육인들의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친선의 력사에 새겨진 위훈

조선과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둔 친근한 린방이다.

두 나라사이에 맺어진 친선의 뉴대를 전하는 력사적사실들중에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도 있다.

공화국이 창건된지 2년도 안되던 1950년 6월에 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조선전쟁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사랑하는 조국강토를 수호하기 위한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싸움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39(1950)년 10월 25일 창건된지 1년밖에 안되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자기 앞에 헤쳐야 할 애로와 난관도 많았지만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였다.

협동작전계획을 토의하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지휘관들

압록강을 건너 조선전선으로 나가는 중국인민지원군 행군종대

《중국인민지원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압록강을 건너 조선전선으로 달려나온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은 전쟁기간 자기 고향과 자기 조국을 지켜싸우는 심정으로 조선인민군과 함께 피어린 항전을 벌리였다.

그들은 적들의 총포탄이 우박치는 불비속에서도 생명도 서슴치 않고 용감히 싸워 조선의 고지와 마을을 지켜냈다.

참전기간 수많은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장렬하게 희생되였으며 그들이 흘린 피가 조선의 대지에 슴배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조국수호전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에 대한 중국인민의 열렬한 지지성원의 표시였다.

조선인민군과의 협동하에 침략자들을 무찌르며 진격하는 중국인민지원군 군인들

조선의 고지를 끝까지 사수할것을 결의다지는 중국인민지원군 군인들

적들을 포위섬멸하고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있는 조중 두 나라 군인들

조선인민들과 중국인민지원군 전사들사이에 흐르는 친선의 정

상감령전투에서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전투승리를 보장한 황계광영웅

얼음구멍속에 빠진 조선어린이를 구원하고 희생된 라성교렬사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은 가렬한 전쟁의 환경속에서도 전투끝의 휴식시간을 바쳐가며 조선농민들의 밭갈이와 씨뿌리기, 가을걷이를 도와주었으며 적기의 야수적폭격으로 파괴된 저수지와 동뚝을 수리하고 도로와 다리들을 복구하였을뿐만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조선인민의 생명재산을 구원하고 보호하여주었다.

실로 조국해방전쟁기간은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우의와 고상한 협조정신이 높이 발휘된 나날이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위훈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평양의 모란봉에 서있는 우의탑은 오늘도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영웅적위훈을 전해주고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9돐을 맞으며 조선인민은 전체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들과 렬사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면서 형제적중국인민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고있다.

글 강수정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위훈을 길이 전하며 평양의 모란봉기슭에 서있는 우의탑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전사한 모안영동지를 비롯한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유해가 안치되여있다.

좋은 취미나 습관을 가진 사람의 생활은 무척 행복스러워보인다.

시안의 여러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 꾸려진 탁구장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로인탁구애호가들의 생활이 그러하다.

비록 련습경기일지라도 빈틈없는 자세를 갖추었다가 재치있게 쳐넣기를 하거나 기회를 놓칠세라 강타를 안기고 또 아슬아슬한 정황에서도 이악하게 받아치는 모습들은 마치 결승의 마당에 선 국가대표팀선수들을 방불케 한다.

그들은 대다수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던 경력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시절에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생토록 나라의 부강번영과 후대들의 더 좋은 앞날을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온 지난 시절이나 다름없이 오늘도 생의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줄기찬 노력을 이어오는 그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탁구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고 여생을 즐기기 위한 수단이 아닌것이다.

《우리는 우승컵을 쟁취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곳에 다닌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경기는 대체로 오전에 두어시간동안 진행되는데 일단 시작되면 선수권쟁탈전과 같이 치렬하다. 자신보다 기술이 높은 상대를 이겼을 때의 쾌감을 느끼기도 하였고 또는 그와 반대되는 경기결과를 놓고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다고 하는 그들이다.

이 나날에 탁구기술의 더 높은 경지에만 오른것이 아니였다. 매일같이 서로 모이고 운동을 하는 과정이 식견도 넓어지고 인격도 더욱 수양하는 과정이였다.

오후에는 모란봉 등에 가서 흥겨운 춤판에 들어서기도 하고 경기장이나 체육관들에 가서 경기관람을 하기도 한다.

그들중 여러 로인들은 이미 해마다 진행되는 장애자 및 애호가체육경기대회들에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대성구역에 사는 71살의 지호와 서성구역의 리현석이 수년만에 했다면 만경대구역의 백명길과 같이 근 10년만에 성취한 이들도 있다.

인생을 계속 아름답게 가꾸어가고있는 이들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최광호

휴양소에서의 하루

깊은 인상을 주는 휴양소에서의 다채로운 생활 (달리기경기, 낚시질, 야외식사, 밤청대)

무더운 여름철이면 조선의 명승지들마다에 있는 휴양소들과 더불어 각지 협동농장들에 꾸려진 농민휴양소들은 더더욱 활기를 띤다.

황해북도 봉산군에 위치하고있는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의 농민휴양소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사는 고장을 자기 손으로 아름답게 꾸려갈 마음 안고 지난날의 뒤떨어진 산골동네를 도적으로 손꼽히는 축산기지로 전변시킨 은정리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5년전 푸른 물결 출렁이는 저수지기슭에 아담한 2층짜리 휴양소까지 일떠세웠다.

해마다 8월이면 이곳에서는 축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작업반들마다에서 모여온 농업근로자들의 즐거운 휴양생활이 펼쳐진다.

오락실에서 매일같이 펼쳐지는 장기, 윷놀이와 같은 민속오락경기들도 볼만하지만 물고기떼 욱실거리는 저수지에서 팔뚝같은 고기를 낚아내는 광경은 더욱 이채롭다.

자기 고장에서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민속무용인 봉산탈춤을 특별히 잘 추는것으로 알려진 은정리사람들인것으로 하여 휴양소에서는 흥취나는 춤판도 자주 펼쳐진다.

문예도서들과 함께 축산과 농산, 양어 등 여러 분야의 도서들도 갖추어져있는 이곳에서 휴양생들은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고 서로의 사업경험들을 교환하기도 한다.

제손으로 심고 가꾼 나무들이 어느새 무성한 숲을 이루고 산열매들이 주렁진 휴양소의 뒤산에 올라 사방으로 흐르는 염소떼, 양떼와 함께 더욱 풍요해지는 고향산천을 감상하는 멋은 또 얼마나 유정한가.

사료1작업반의 분조장인 문종권은 지난해에도 휴양생활이 참으로 인상에 남았는데 올해에는 더욱 재미있었다고 하면서 휴양을 마치고 돌아가면 맡은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겠다고 자기의 생각을 터놓는다.

오늘 농장에서 생산되는 젖가공품 그리고 봉산탈춤과 함께 이곳에서의 농민휴양은 은정리의 또 하나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박병훈

조선어린이후원협회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어린이후원협회는 어린이들의 건강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보육교양과 관련한 국가적, 사회적사업을 방조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협회에서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활동, 치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협회는 주체102(2013)년 11월 첫걸음을 내디딘 때로부터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그들을 위한 후원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기관과 단체들,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맞게 자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있다.

협회에서는 뜻밖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비롯한 긴급상황시에 어린이들의 건강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이동의료봉사와 지원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그와 함께 전국의 호담당의사들과 협회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 등을 조직하여 어린이보육과 관련한 정보들을 신속히 통보하며 단계별 계획에 따라 전국의 육아원과 탁아소, 소아병원들을 후원하는 사업도 꾸준히 전개해나가고있다.

협회에서 조직하는 이동진료소들을 통한 봉사활동의 실효성은 2015년 나라의 북부 라선시에서 큰물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비롯한 여러 재난적인 계기때마다 뚜렷이 부각되였다.

어린이건강보호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는것은 협회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있다.

협회본부와 지부들에서는 국제아동절과 봄철과 가을철의 어린이 건강의 날, 세계보건의 날 등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건강관리 및 교육과 관련한 사진전시회, 토론회들을 진행하여 사회적후원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있다.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협회에서는 뿐만아니라 어린이후원사업에서 여러 나라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과 사회단체들,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긴밀히 하기 위한 활동도 추진해나가고있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나갈 주인공들로 내세우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공화국정부의 노력과 부합되는 조선어린이후원협회의 사업은 오늘도 계속 되고있다.

사진 신충일
글 김선경

어린이건강의 날을 맞으며 어린이건강관리 및 교육과 관련한 토론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다.

Women's 10m Synchro Platform			
Results - Final			
1	PRK	KIM Mi Rae / JO Jin Mi	329.70
2	CAN	Meaghan BENFEITO / Caeli McKAY	328.47
3	CHN	LU Wei / ZHANG Jiaqi	320.64
4	GBR	Eden CHENG / Lois TOULSON	291.36
5	MEX	G. AGUNDEZ GARCIA / A. OROZCO LOZA	286.62
6	MAS	Pandelela PAMG / N.D.B. SABRI	285.00
7	USA	Delaney SCHNELL / Jessica PARRATTO	270.42
www.fina.org			MONTREAL 2019

높은 목표를 향해

2019년 국제수영련맹 물에뛰여들기 세계순회경기대회 녀자 10m고정판 동시경기에서 우승한 김미래, 조진미선수들

해마다 열리는 국제수영련맹 물에뛰여들기 세계순회경기대회는 전해에 있은 세계선수권대회나 세계컵경기대회, 올림픽경기대회에서 1위부터 6위권안에 든 선수들이 참가하는 강자들의 대결장이다.

지난 3월에 진행된 2019년 국제수영련맹 물에뛰여들기 세계순회경기대회 1, 2단계경기 이후 조선에서는 녀자 10m고정판 동시경기에 김미래, 조진미선수들이 참가하는것으로 선수구성을 변경시켰다.

이를 놓고 느낌표보다 의문부를 다는 전문가들이 더 많았다.

김미래가 이미 여러차례의 국제경기들에서 10여개의 메달을 획득한 경험있는 선수라면 조진미는 지난해 국내선수권보유자대렬에 갓 들어선 선수였다.

기술을 배워준 감독도 달랐다.

더우기 카나다에서 진행되는 3단계경기까지는 날자가 얼마 없었다.

4월 26일 김미래와 조진미는 자신들의 실력을 새롭게 평가받아야 하는 경기마당에 나섰다.

자기 혼자만 잘해서 되는것이 결코 아닌 동시경기에.

녀자 물에뛰여들기경기는 다섯번 경기를 진행하고 매 경기성적을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첫 경기부터 대담하게 진행하면서 그들은 두번째경기까지 맨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다른 선수조들도 만만치 않았다.

세번째경기에 이어 네번째경기를 치른 상태에서 그들의 순위는 2위였다. 선두에 있는 카나다선수들과의 점수차이는 6점.

마지막경기에서 승부가 결정될 판이였다.

그들이 10m높이의 조약대끝에 나란히 서서 준비자세를 취했을 때 온 장내가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동시에 뒤로 힘껏 조약한 두 선수가 공간에서의 빠른 회전을 맵시있게 진행하고 입수동작까지 정확히 수행하자 환성이 일고 박수갈채가 터졌다. 성공이였다.

- 조선선수들의 실력은 확실히 뛰여나다. 물면이 완전히 매끈했다. 두개의 물방울만이 튀여난듯싶었다.

- 그들의 기술동작은 개개 요소가 세련되고 완벽하다. 전혀 편차가 없다. 그야말로 표준이다.

결국 김미래, 조진미선수조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영예의 우승자가 되였다.

이에 대해 김춘옥 조선아마츄어수영협회 부서기장은 《확실히 그들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부모들도 몰랐던 자신들의 재능을 찾아 꽃피워준 조국을 빛내이겠다는 마음만은 꼭 같다. 이것이 첫 경기에서부터 금메달을 쟁취할수 있은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김미래, 조진미선수들은 로씨야와 영국에서 벌어진 4, 5단계경기들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도 이들은 서로의 마음과 지혜를 합쳐가며 더 높은 목표에로 향한 전진을 계속하고있다.

사진 손희연
글 김미예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훈련에 열중하고있는 선수들과 감독들

희망과 재능을 꽃피워가는 장애자들

국가적관심과 보살핌속에 자기들의 재능을 나날이 꽃피워가는 장애자들의 행복 넘친 모습이 국제무대들에 자주 펼쳐지고있다.

지난 7월 중국 대북에서 진행된 2019년 국제탁구련맹 아시아장애자탁구선수권대회에서 조선의 전주현, 김영록선수들은 단체전(TT6부류-TT7부류)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8월에 진행된 2019년 국제탁구련맹 방콕크장애자공개탁구경기의 단체전(TT6부류-TT7부류)경기에서도 그들은 맞다드는 모든 팀들을 2：0으로 이기고 우승의 단상에 올랐다.

이달에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조선장애자예술단의 공연무대도 펼쳐졌다.

무대에는 청력, 시력, 지체장애자들이 펼친 손말시 《사랑하리라》, 혼성중창 《우리의 국기》, 무용 《장고춤》, 요술 《바줄재주》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올랐다.

전문가들 못지 않은 높은 예술적기량을 지니고 악기들을 다루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출연자들의 모습은 관중의 감탄과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최의림

2019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대북에서 진행된 2019년 국제탁구련맹 아시아장애자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전주현, 김영록선수들은 단체전(TT6부류-TT7부류)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조선장애자예술단이 준비한 손말시 《사랑하리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은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민족의 옛 풍습을 보다

-개성민속려관에서-

조선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918년-1392년)의 수도였고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시기에도 상업도시로 번성하였던 개성시에는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이 깃든 력사유적들이 수없이 많다.

옛 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여있는 조선기와집구역도 그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합각지붕, 우진각지붕, 배집지붕 등 전통적인 지붕형식들을 취한 살림집들이 빼곡이 늘어선 속에 개성민속려관이 위치하고있다.

구내의 가운데로 흐르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는 침실호동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식당, 연회장, 상점과 같은 봉사시설들이 있다.

합각지붕들을 얹은 조선식건물인 려관의 매 호동마다 여러칸의 온돌방들과 퇴마루 등이 있어 개성을 비롯한 조선중부지대에서 전해져오는 살림집건축형식을 그대로 재현하고있다.

이 지방에 특히 많았던 ㅁ자형집형식을 취하고있는 침실호동들은 조선식문간안에 문간채와 사랑채, 안채들이 서로 격리되여있는데 이곳에서 손님들은 지난 시기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감정 등을 느낄수 있게 되는것이다.

려관에서는 민속전통과 결부된 봉사활동이 특별히 이채를 띠고있는데 손님들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통하는 뜰안에 앉아 가야금장단에 맞추어 떡메를 휘두르는 봉사원들의 구성진 노래소리를 들으며 맛보는 흰쌀떡과 지짐이 정말 별맛이라고 하고있다.

려관은 개성의 특산음식인 12첩반상기, 개성고려인삼닭곰, 설렁탕, 약과 등에 대한 봉사를 잘하는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사진 안철룡
글 오해연

낸곳 : © 조선화보사 2019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한형주 13606-1980254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신평금강의 큰 노은포골
사진 김혁철